

마한부터 5·18까지...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

국립광주박물관 전라도 정도 1000년 특별전

금동여래입상 등 국보 5점·보물 38점 등 유물 250점 출품
오늘 개막식 내년 2월 10일까지...삶과 문화, 사람 이야기



왕궁리 출토 '금동여래입상'

‘고려사’에 따르면 전라도는 고려 현종 9년(1018)에 옛 백제 땅이었던 강남도(江南道)와 해양도(海陽道)를 합쳐 만든 행정구역이다. 이 지역은 목(牧)이 설치된 ‘전주’와 ‘나주’ 중심의 여러 군과 현을 묶어 ‘전라도’로 불리게 된다.

이 지역은 전라도로 정명되기 훨씬 이전부터 물산이 풍부하고 자연이 아름다워, 글자 그대로 ‘온전하고’(全), ‘비단결 같은’(綿) 고장이었다. 그러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전라도는 바다에 면하고 물결이 발달해 외적의 침입 또한 잦았다. 전라도 곳곳에 특유의 근기와 호국정신이 깊이 뿌리박혀 있는 그 때문이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라도를 지켜온 이들을 조명하는 특별전이 열려 눈길을 끈다.

국립광주박물관(관장 김승희)은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하는 ‘全羅千年-전라도 천년을 지켜온 사람들’을 개최한다.

23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는 전라도라는 지역공동체를 바탕으로 천년의 삶을 일구고 풍요로운 문화를

꽃피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재조명하는 자리다. 이번 전시에는 왕궁리 출토 ‘금동여래입상’(국립중앙박물관)과 ‘조선왕조실록’(국립고궁박물관) 등 국보 5점과 38점의 보물 등 250여점의 유물이 출품된다.

전시는 모두 5부로 구성된다. 1부는 전라도 정도 천년의 역사적 근거가 기록된 ‘고려사’부터 시작한다. 전라도의 다양한 모습이 담긴 조선지도들 통해 전라도의 생생한 모습을 살펴보는 데 초점을 뒀다. 보물 제1588호 ‘호남지도’와 함께 영남대학교 박물관이 소장한 ‘전라남북도여지도’의 53개 군현도가 전시된다.

2부는 ‘전라도’로 불리기 이전부터 이 땅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다. 기원전후로 추정되는 광주 신장동 유적(인골)은 전라도 사람들의 실제적 모습을 보여준다. 고조선의 준왕, 마한의 여러 소국, 백제, 그리고 전라도에 왕도의 꿈을 담은 백제의 무왕까지, 이 지역에 새로운 문명이 더해져 가는 과정도 볼 수 있다. 완주 봉림사지 석조보살상(전북대박물관 소장)과 금동여래좌상(국보 제123호) 등은 잘나와 왕조인 후백제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3부는 전라도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전라도 천년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 이 땅에는 왕조의 수도가 자리한 적이 없다. 반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개혁적이며 진보적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지눌(知訥·1158-1210)과 요세(了世·

1163-1245)는 순천과 강진에서 타락한 정치계와 결탁한 기존 불교의 개혁을 의지하며 활동했다. 19세기 말 정읍의 녹두장군 전봉준은 사람이 하늘이 되는 세상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섰다. 전시는 지눌의 ‘비문’과 수선사중창기가 실려 있는 보물 제572호 ‘수선사형지기’(修禪社形記·송광사성보박물관) 등이 출품될 예정이다.

4부는 부처의 가르침을 따라, 때로는 대의명분을 따라, 이 땅을 지키기 위하여 스스로 전장에 나간 사람들을 다룬다. 임진왜란 당시 전장에 나간 스님들, 충의를 지키기 위해 일어난 유생 의병들, 한말 빼앗긴 삶의 타전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이름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

마지막으로 5부는 외지인들의 기행문과 전라도 출신 근현대작가들의 작품을 통해 전라도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을 제시한다. 절의와 도학에 뿌리를 둔 전라도 사람들은 국가가 어려움에 처할 때 분연히 일어나 나라를 구하는 데 진력했다. 이 같은 의로움은 80년 민주화운동에까지 이어져 생생한 역사의 정신으로 계승되고 있다.

한편 전시 기간 중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야간개장에는 특별전의 내용을 주제로 한 큐레이터와의 만남이 준비돼 있다. 또한 22일 오후 3시 30분부터 열리는 전시 개막식에는 강정열(국가무형문화재 제23호) 등의 가야금 병창 공연이 열린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봉림사지 석조보살상



이순신 장군 초상



전라남북도여지도

드영미술관 ‘청년작가 8인 8색전’

11월 11일까지...한국화·서양화·설치 작품 등 40여점 전시

지난 5월 광주 무등산 자락에 문을 연 드영미술관(관장 김도영)은 개관 당시 청년 작가들을 응원하는 공간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었다. 개관 기념전, 기획전 등을 열며 올해 일정을 진행중인 드영미술관이 청년 작가들을 초대해 전시회 ‘청년작가 8인전’을 미술관 1·2·3전시실에서 열고 있다.

오는 11월 11일까지 ‘8인 8색’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한국화, 서양화, 설치 등 다채로운 작품 40여점을 만날 수 있다.

‘순수’라는 꽃말을 갖고 있는 카라 꽃을 소재로 작업하고 있는 김계진 작가의 작품은 녹색 잎 무더기 속에 숨겨 있듯, 피어있는 카라 꽃들의 모습이 상쾌함을 전한다. 노여운 작가의 작품은 ‘사람의 흔적이 가장 많이 축적된 도심 공간’인 골목길을 소재로 작업한 것들이다.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색감이 인상적으로 똑같은 골목길 풍경을 해질녘과 한밤중에 각기 화폭에 담은 작품도 눈에 띈다.

현실 도피의 공간을 상징하는 유토피아를 초현실적으로 그려내는 문형선 작가는 남도의 풍광을 상상의 공간에 화려한 색감으로 표현해 냈으며 박

정일 작가는 추상풍경 속에 등장하는 무리 지은 세의 모습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운 일상을 꿈꾸지만 그 곳에 쉽게 정착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다.

또 이두환 작가는 한국화의 전통적 기법을 바탕으로 화려한 색채와 중점묘사, 넉타이, 토끼, 비둘기 등 어울리지 않는 이미지를 한자리에 모아 해학적으로 표현한 현대인의 초상을 전시하고 있으며 지하 전시실 전체를 사용하는 이정기 작가는 ‘반추적 시선’ 등 깨진 유리 조각을 소재로 한 설치 작품을 통해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밖에 골판지 상자, 재활용 폐지를 오려붙이는 작업을 통해 따뜻함을 전하는 양나희 작가, 세밀하게 그려낸 여성 인물화를 통해 섬세한 감정을 표현해온 이선희 작가의 작품도 전시장에서 만날 수 있다.

드영미술관은 내년부터는 전시실 중 한곳에서 지속적으로 청년작가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월요일 휴관. 문의 062-223-6515.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문형선 작 '유토피아-구정봉'

롯데갤러리 윤준영 초대전

▶ ‘기쁨은 끝도 없이 적막해졌다’



24일까지... 지역작가 지원전

개관 이후 19년 동안 지역 작가들을 위한 창작 지원전을 열고 있는 롯데갤러리가 올해 두번째 작가를 초대했다. 24일까지 ‘환상방황’을 주제로 전시회를 갖는 한국화가 윤준영이다.

한국화 특유의 무채색 위주 화풍에 사색적인 내용을 묘사해온 윤 작가의 이번 전시 주제 환상방황(環狀方皇·Ringwanderung)은 방향 감각을 잃고 동일한 지점을 맴도는 현상을 통해 사회 안에서 체감되는 소외와 불안, 갈등, 단절 등을 표현하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현대인의 상실과 좌절, 공허의 심리를 보여주는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예전

작품에서 공동주택과 같은 집합공간들의 두터운 벽과 벽으로 고립성을 보여줬던 작가는 근작에서는 미로와 같은 구조물을 통해 사회라는 전체적 질서에서 무력화된 개인의 현재를 묘사한다.

출구를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 구조물 안에는 희망과 기원을 상징하는 푸른 달이 떠 있다. 먹과 콩테로 구성된 무채색의 화폭에 간간히 등장하는 이 푸른색과 새, 나무, 의자 등은 삶에 대한 희망, 고독, 상실의 현재를 대변한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윤 작가는 광주시립미술관 북경장작센터 입주작가, 무각사 로터스갤러리 전시공모 선정 등으로 활동했다. 문의 062-221-1807.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쳐보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앞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중로 5가역 1층 02) 765-9940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자연의 소리... **국제보청기**

2~3년만 가는 방수? 20년 이상 너끈히 가는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선정

IPALG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완벽방수 내구성보강 2중단열 지진에 강한 탁월한 내구성 6년무상A/S 정기점검

1. 시공전 2. 단열베이스카펫 시공 3.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시공 4. 시공후

OO초등학교 맞춤형디자인 시공후

6년무상A/S 정기점검

완벽한방수 난연소재 맞춤형디자인 2중복합단열 내진보강

IPALG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건물에 맞춤형 디자인을 입혀 리모델링 하세요!

특허공법·디자인방수·외벽리모델링 전문기업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광주전남 대리점 (062)511-0444
H.P 010-6603-0405
목포 (061)284-0485
여수 (061)683-0485
순천 (061)726-0482
광양 (061)795-0485

공식홈페이지 www.IPALG.co.kr
공식블로그 blog.naver.com/waterproof01